



대·중기협력재단-LS산전,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LS산전과 지난 21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산전은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을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왼쪽)이 LS산전 김동현 CFO(최고재무책임자)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주금공, 설 맞아 장애인 복지관서 떡국 나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시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2020년 설맞이 福(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정한 사장(가운데)과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은 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 700명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떡을 선물했다. /주택금융공사



롯데홈쇼핑, 설날 맞이 명절음식 나눔봉사
 롯데홈쇼핑은 지난 21일 설날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설날 맞이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홈쇼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롯데봉사단' 20여 명과 영등포지역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영등포 희망수라간 서포터즈'가 참여했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실종아동 찾기 '그린리본 캠페인' 협약
 롯데칠성이 지난 21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칠성 본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그린리본 캠페인' 협약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은 영업망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롯데칠성으로 정찬우 HR부부장(왼쪽)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상영 실종아동전문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



신세계푸드, 설 맞이 명절음식 나눔 행사
 신세계푸드가 설을 맞아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명절용 가정간편식을 전하는 나눔행사를 펼쳤다.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은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66곳에 떡국떡, 곰탕, 소불고기, 만두류 등 명절음식으로 구성된 가정간편식을 전달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16곳의 가정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도시락까지 더해 배달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신세계푸드

GDP 2% 성장의 의미



윤 위 중 역
 잠시 심포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 성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과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판론이 우세하다. 민간 경제가 주도한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성장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며 정부의 결정적 역할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3분기보다 좋아졌으니 경기가 바닥은 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는다. 특히 연 2% 성장에 대해선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들여볼 필요

가 있다. 지난해 4분기의 1.2% 성장이 정부 주도의 재정집행에 기인했다는 점은 결코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6.8% 성장 이후 줄곧 2~3%의 성장을 기록해왔다. 게다가 2017년 3.2%였던 GDP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0%로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의 0.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해 9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9%로 하향조정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도 2.7%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OECD는 우리나라의 2019년 GDP가 2% 초반이란 걸 예측한 셈이다.

게다가 좀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2%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집행이 없었다면 4분기 1.2% 성장은 힘들었고, 2019년 전체 성장률 2%도 불가능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어 GDP 성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민간소비는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수출도 1.5% 증가에서 멈췄다. 설비투자(-8.1%), 건설투자(-3.3%)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는 오히려 역성장했다. 4분기로만 보면 건설투자가 6.3% 증가했고 설비투자(1.5%)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수출이 0.1%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2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0.2% 줄었다는 점이 불안하다.

그나마 OECD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 보다 좋아질 것이라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 역시 당초 2.5%까지 봤다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인 등으로 0.2% 포인트 줄인 것이라 마음 놓기는 어렵다. 2%에서 2.3% 성장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신한금융,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선정

국내기업 중 최초 8년 연속 전 세계 기업 43위로 선정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에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8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100은 캐나다의 미디어 그룹 및 투자 리서치 기관인 코퍼레이트 나이즈(CorporateKnights)가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지수다. 전 세계 7395개(매출 10억 달러 이상 상장사)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채무관리, 리더십 다양성 등 21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100대 기업의 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종 명단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100에 선정됐다.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세계 기업 43위로 선정됐다. 전세계 금융회사 가운데서는 ING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울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가했다.

신한금융이 뛰어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해 온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국방부 △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획과장(방위사업청서 파견) 박정은 △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용승일 △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김선봉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장 차용국 △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노정관 △ 방위사업청 파견(전투차량사업팀장) 최원복

◆삼성증권 △ 부사장 승진 △ 리테일부부장 사재훈 △ 전무 승진 △ SNI본부장 박경희 △ 상무 승진 △ 전략기획담당 김범구 △ 강서지역본부장 김홍호 △ 기업금융2본부장 이상현 △ 법무팀장 황은아

◆삼성자산운용 △ 상무 승진 △ 유영재 채권운용본부장 △ 박민재 경영지원팀장

◆삼성카드 △ 부사장 승진 △ 박경국 △ 전무 승진 △ 김상우 △ 최정훈 △ 상무 승진 △ 윤한주 △ 조은경 △ 황성원

◆삼성생명 △ 부사장 승진 △ 박종문 △ 전무 승진 △ 김원희 △ 이경복 △ 이성열 △ 상무 승

진 △ 김상필 △ 이상희 △ 이성환 △ 이팔훈 △ 이호선 △ 최창희 △ 한원기

◆삼성화재 △ 전무 승진 △ 김규형 △ 김인 △ 이호현 △ 정현 △ 상무 승진 △ 곽승현 △ 구영민 △ 김철영 △ 양권진 △ 원동주 △ 이상동 △ 최부규

◆삼성서울병원 △ 전무 이형배

부음

▲박철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서정희씨 남편상, 박종림(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박종우(하트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조혜원씨 시부상, 박진우·박준우·박성민·박성준씨 조부상 =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4시30분. ☎ 02-2072-2020

▲장태영씨 별세, 장창원(자영업)·장정아(유치원 운영)·장경아·장성아씨 부친상, 정현정씨 시부상, 유성재(동진세미점 상무)·정종원(제일모직부장)·이성국(사업)씨 장인상, 장요한·장주하

씨 조부상, 유지은·정은명·이예원씨 외조부상 = 22일 오전 1시 20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시 시간 미정,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 031-787-1501

▲김선미(창무예술원 예술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씨 별세, 조정제(㈜DI 사외이사)씨 부인상, 조혜인(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박사과정)씨 모친상 = 21일 오후 9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 02-2227-7556

▲김애자씨 별세, 서유찬(자영업)·서기찬(위키트리 편집국장)·서미라씨 모친상, 문세리·김희진씨 시모상, 조수현씨 장모상 = 21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낮 12시30분, 장지 김포 청솔수목원. ☎ 031-900-0444

▲송정례씨 별세, 이철식(한국지엠 창원관리담당 이사)씨 모친상 =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성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 055-750-8448